



3대리구 선남성당 | 그림\_서원만 베르나르도

+Bernardo - 김성호 2022-

# 대구주보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하느님 말씀을 따라

연중 제31주일 2022. 10. 30. (다해) 제2346호

**제1독서** 지혜 11,22—12,2 **화답송** ◎ 저의 임금이신 하느님, 영영 세세 당신 이름을 찬미하나이다.  
**제2독서** 2테살 1,11—2,2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하느님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  
 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네. ◎ 알렐루야. **복음** 루카  
 19,1-10 **영성체송** 주님, 저에게 생명의 길 가르치시니, 당신 얼굴 뵈오며 기쁨에 넘치리이다.

❖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며 하나 된 마음으로 매일 밤 9시 주모경을 바칩시다!

## 또 다른 자캐오를 찾아서

안강성당 주임 | 신장호 스테파노 신부



안강에는 매월 4일, 9일에 5일장이 섭니다. 장날이 되면 도로 곳곳에 좌판이 열리고 다양한 먹거리와 볼거리로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하죠. 세탁소를 운영하는 강회장님 가게는 장날이 되면 쉽터가 됩니다. 장을 보러 오신 손님들은 물건이 아닌 5일 동안의 이야기보따리를 풀어놓습니다. 강회장님은 다방커피를 주문해서 손님 대접을 하십니다. 한 번은 어떤 다방 자매님이 오셨는데 강회장님이 “몇 년째 성당에 가자고 공을 들여도 꿈쩍도 안 하는데, 신부님이 오라고 하면 성당에 나오지도 모르겠네요.”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바통을 이어받아서 “성당에 한 번 오세요.” 하고 권면해 보았습니다. 나중에 다른 분에게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성당에 못 나오는 이유가 직업 때문이라고.

오늘 복음 말씀은 세관장 자캐오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예리코라는 도시는 교통의 요충지로 무역거래가 왕성하게 이뤄지는 대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런 도시의 세관장이었으니 엄청난 고위직이죠. 그러나 로마의 식민지라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세리들은 공적 죄인이었습니다. 동족의 고혈을 짜서 로마 당국에 바치는 세리들이었기에 사람들은 로마의 앞잡이, 매국노라고 멸시했습니다.

돌무화과나무에 올라간 자캐오의 모습은 예수님을 보고 싶은 간절한 열망과 동시에 그의 안타까운 처지를 담아냅니다. 키가 작은 자캐오. 군중이 앞을 가려 볼 수 없다면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을 앞에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캐오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것을 아니까요. 그래서 사람들과 떨어져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곳을 찾은 곳이 바로 돌무화과나무 위였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자캐오야, 얼른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네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루카 19,5) 온갖 멸시와 냉대로 투명 인간보다도 더 못한 처지로 지내던 그에게 이 말을 통해 한 존재로 대우해 주시고, 방문을 통해 친구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손 내밈. 자캐오는 그 손 내밈을 마다할 수 없었습니다. 철저한 외로움 속에서 그토록 그리워하고 바라던 소망이었으니까요. 자캐오는 “내려오너라.”라는 말씀대로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서러움과 무시를 당하지 않으려고 쌓아왔던 재산, 사람들 위에 있음을 과시하고자 권력으로 부당하게 횡령했던 금전을 내려놓습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내렸다.”(루카 19,9)

오늘날 우리 주변에 또 다른 자캐오가 있습니다. 직업 때문에, 과거 때문에 성당에 오고 싶어도 발걸음을 뗄 수 없는. 사람들의 곱지 않은 시선과 차가운 말이 아픔으로 다가와 피하고 싶고, 가까이하기가 두려운 나머지 돌무화과나무 위에서 외로이 바라보는 자캐오가 있습니다.

제1독서 지혜서는 이렇게 하느님을 소개합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을 사랑하시는 분, 당신께서 만드신 것을 하나도 혐오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고 따르다면,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또 다른 자캐오를 찾아 나설 것입니다. **궤도**

## 한 손만 내민다면 그 손을 잡아줄 곳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대구카리타스 달서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 동료지원가 박○○

40여 년 전 호기심으로 처음 접한 술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수치심과 현실의 고통을 잊게 해주고, 무모한 용기를 주는 술기운의 수렁에 빠져 버렸습니다. 알코올 중독으로 비참하게 세상을 떠난 형님의 죽음을 지켜보면서도 저는 중독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8년 전 처음 알코올 중독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몇 개월 후 퇴원해서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저는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저 자신을 스스로 고립시켜 버린 것입니다. 이후에도 입·퇴원은 여섯 차례나 되풀이되었습니다.

올해 1월, 저는 여섯 번째 병원 생활을 마치고 나와 대구에 작은 원룸을 얻어 살고 있습니다. 더는 내어 줄 것도 없는 인생에 깊은 절망뿐이었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맑은 정신으로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문득 병원에서 만났던 어느 환우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이용했었다는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밀저야 본전이라는 심정으로 대구카리타스에서 운영하는 중독센터를 찾아가 상담을 마치고 나서는데 웬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그저 단 한 명이라도 제 말을 들어줄 사람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이후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과 함께 매주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내가 왜 술을 끊어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하고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회복한 분들을 만나 경험담을 듣고 단주에 대한 지식과 회복에 관련된 여러 사례를 접하면서 '나도 단주할 수 있겠구나!' 하는 작은 희망도 품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는 방송통신대학에 입학해 센터에서 마련해 준 저만의 공부방에서 강의를 듣고, 그토록 바라던 평범한 일상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를 응원하고 믿어주던 센터 직원들의 따뜻한 배려가 없었다면 아마 퇴원 후 두세 달을 버티지 못하고 다시 알코올 중독에 빠졌을 것입니다. 단주를 위해서는 자신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혼자 회복하기 쉽지 않기에 전문기관의 지원을 받아 함께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직도 많은 중독자가 삶의 길을 잃고 헤매고 있습니다. 본인의 의지로 한 손만 내민다면, 그 손을 잡아줄 곳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희망을 잃지 않고 암울한 중독의 늪에서 빠져나와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기도합니다. **김민**

※ 달서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인간 존엄성의 가치 실현과 가톨릭 정신에서 우러나온 책임에 근거하여 중독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당사자와 가족을 위해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원조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회복에 기여하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회복의 과정을 경험하고 있는 당사자들이 '동료지원가'로 활동하며 또 다른 이들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밀알회>는 대구대교구 공식 사회복지 후원회로 장애인, 노인, 아동, 여성, 노숙인 등 가난하고 소외된 이를 위한 복지사업과 교구 소속 10개 법인의 100여 개 시설과 본당사회복지협의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정기 후원자 가입 문의: 053)422-3411

## 교황, “통계가 아닌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기아가 사라집니다”

2022년 10월 14일 바티칸 뉴스 | 번역 안주영

“우리는 ‘제3차 세계대전’이라고 부를 정도의 전시 상황에서 살고 있습니다. 세계는 전쟁 중입니다. 우리는 이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세계 식량의 날(10월 16일)’을 맞아 유엔식량농업기구(이하 FAO) 사무총장 취동위에게 메시지를 보내며 이같이 말했다. 세르지오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과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세계 식량의 날을 맞아 메시지를 보냈다.



유엔으로부터 식량 지원을 받는 마다가스카르 가족들

### 타인을 우리 형제자매로 여기십시오

교황은 올해 세계 식량의 날 주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세상: 생산, 영양, 환경 및 생계 개선”을 떠올리며 “아무도 소외시키지 않으며 함께 일하고 함께 걷지 않는다면 인류에게 영향을 주는 수많은 위기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타인을 우리의 형제자매로, 우리처럼 인류 가족을 이루는 구성원으로 생각해야 한다.”라며 “그들의 고통과 필요가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준다고 생각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항구한 해결책

교황은 2022년 세계 식량의 날 주제인 △생산 △영양 △환경 △생계 등 “4가지 개선 사항”과 관련해 “기아와 영양실조의 완전한 퇴치에 이바지” 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개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같은 개입은 “상황적인 결핍이나 긴급상황에 단순 대응”하는 호소로 그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공정하고 항구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영양 공급과 밀접한 빈곤 문제를 모든 차원에서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절박함을 거듭 강조해야 합니다.”

### 국제 협력의 어휘에 “사랑의 범주”를 도입하십시오

교황은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특별한 사연과 얼굴을 지닌 사람들이 특정한 장소에 살고 있다.”라는 사실을 간과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들은 헤아릴 수 없는 숫자, 데이터나 통계가 아닙니다.” 교황은 “공동선을 추구하는 가운데 국제 협력의 어휘에 ‘사랑의 범주’를 도입해 인류애와 연대로 국제 관계를 재단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우리는 타인과 피조물을 돌보는 일에 집중하면서 본질적인 것과 거저 받은 선물들에 시선을 돌리라고 부름받았습니다.”

### 인류의 선의를 위한 형제애, 화합, 상호협력

교황은 메시지 말미에 “형제애와 화합과 상호협력을 최우선으로 하여 빈곤층을 위해 일하는 FAO 및 기타 정부 간 조직들과 함께 걸어가겠다는 교황청과 가톨릭교회의 약속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한다.”라고 강조했다. “오늘날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 세상에 선의를 주는 지평을 발견하기 위함입니다.”

드망즈 주교의 일기  
1912년

## 교우촌 방문과 미사집전

11월 30일 토요일

오후에 우리는 나바위를 떠나서 이 발도로메오[李尙華] 신부의 첫 번째 공소인 석동(石洞)으로 갔는데 그곳은 조그만 용안(龍安)면을 지나서, 나바위에서 10리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다.

12월 1일 일요일

나는 석동공소 건물을 공개 오라토orium으로 강복했는데, 그곳의 주보성인은 성 아오스당이다. 마을과 근방에서 많은 교우들이 왔다. 춥고 눈이 내리고 있었음에도 모든 문들을 열어놓고 미사를 드렸다. 결과는 심한 감기였다.

12월 3일 화요일

이[李尙華] 신부의 거주지인 안대동(安大洞)으로 갔다.

12월 4일 수요일부터 6일 금요일까지

안대동에서 공소를 치렀다. 감기가 심해져서 마지막 날은 방을 지켜야 했다.

12월 7일 토요일

안대동에서 익산(益山)읍 근처의 옹기촌인 도화정리(桃花亭里)까지 50리 길을 갔다.

12월 8일 일요일

만약 한국의 인구가 불어난다면, 이 교우촌은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얼마나 아이들이 많은지!

12월 9일 월요일

날씨가 아주 온화해서 새실로 가는 길에 나의 나머지 감기가 떨어졌다.

12월 10일 화요일

새실에서 공소를 보았다. 집은 아주 낡았고, 또 아주 낮았다. 미사를 드리면서 몸을 똑바로 세우기가 힘들었다. 주교관을 쓰기 위해 방 한가운데 있는 대들보 위에서 작은 공간을 찾아낼 수 있었다.

12월 11일 수요일

나는 베르모렐 신부 및 이[李相華] 신부와 헤어져서 전주(全州)로 길을 떠났고(70리), 새실에서 20리 떨어진 곳에서 보두네 신부를 만났다. 우리는 4시에 전주에 도착했다. 베르몽 신부가 벌써 거기에 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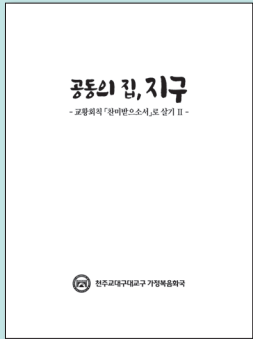
12월 12일 목요일

우리는 일찍 서당리로 떠났고, 거기서 즉시 일을 시작했다.



# 2023 리스본 세계청년대회 참가신청

기간 | 2023. 7. 24.(월) ~ 2023. 8. 11.(금)  
 장소 | 포르투갈(포르투-교구대회, 리스본-본대회),  
 스페인(마드리드), 프랑스(파리)  
 대상 | 만 19세 ~ 34세 (40명)  
 신청 | 2022. 12. 4.(주일)까지  
 문의 | 청년청소년국 청년사목 (053)264-2030



## 공동의 집, 지구

- 교황회칙 「찬미받으소서」로 살기 II -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성당에서 교우들과 함께  
 지구살리기를 실천합니다.

가격 | 1,500원

문의 | 교구 가정복음화국 053)250-3077-3114

## 교구청 내 부서 사무실 이전 안내



기존 대건관에 위치해 있던 일부 교구청 부서 사무실을  
 교육원 건물로 이전하였사오니 관련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국, 가정복음화국 ⇨ 교육원 가동 3층  
 교구 음악원 ⇨ 교육원 나동 1층 교구 법원 ⇨ 교육원 나동 2층

함께 가자, 생명의 길로! - 말씀과 함께하는 생태발자국 줄이기

## 음식은 먹을 만큼 적당하게 조리해 먹기

교구 평신도위원회 & 생태환경위원회 제공

언제나 기쁜 마음으로 박성규 엘리지오

“자캐오야, 얼른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네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자캐오는 얼른 내려와 예수님을 기쁘게 맞아들였다. (루카 19,5-6)

우리집에 머물고(?) 계시는 예수님을...

## 미사 안내

3대리구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11월 5일(토) 10:00 월성성당	한국여기회 회원미사	11월 5일(토) 11:00 앞산밀복카페
교구성체조배회 월례미사	11월 5일(토) 10:00 지산성당	-	-

### 수도회 성소 | 피정

#### 한국외방선교(해외선교)수녀회 성소 모임

대상: 해외선교와 수도생활에  
관심 있는 미혼여성  
문의: 김토마스 수녀, (010)9353-1773

#### 성골롬반외방선교회 성소 모임

일시: 11.6(일) 10:00  
장소: 서울본부(동소문로)  
대상: 만 19~35세  
문의: korvocation@columban.or.kr

#### 708차 주일성령묵상회 (주일 3회과정)

일자: 11.13, 11.20, 11.27 (매주 주일)  
시간: 9:30~18:30 / 비용: 12만원  
장소: 성령봉사회관 (고령 월막피정의집)  
차량: 설화명곡역 2번 출구 8:40 출발  
문의: (054)954-3091

#### 강우일주교님과 함께 걷고 듣는 제주이야기

대상: 개인, 단체 (구역반장 피정 환영)  
일자: 12.5(월)~7(수)  
장소: 제주 성이시돌 피정의집, 사목센터  
문의: (010)9670-9775, (010)2231-2074

### 기관 | 시설 | 단체 알림

#### 2023년 전기 대구가톨릭대 대학원생 모집

원서접수: 10.31(월)~11.11(금)  
모집: 일반, 교육, 특수 대학원  
문의: 850-3581,3(일반) / 850-3508(교육)  
660-5253-4(특수)  
<http://www.cu.ac.kr>

#### 대구가톨릭대학교 유스티노자유대학원

인문학석사학위 과정 신입생 모집  
접수: 10.31~11.11 / 월 야간강의(목6회)  
대상: 학사학위 소지자(전공 무관)  
혜택: 전원 50%(수도자 100%) 장학금  
문의: 660-5252~4 / (010)6563-0409

#### 대구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과정 모집  
모집기간: 10.31(월)~11.11(금)  
온라인 접수: <http://cu.ac.kr>  
문의: 660-5111

#### 효성초등학교 2023학년도 신입생 모집

일자: 10.31(월)~11.4(금) 9:00~17:00  
대상: 2016.1.1~2016.12.31 출생 아동  
조기입학자 및 2022 취학의무유예자  
문의: 234-9500

#### 제21회 사진가회 회원전

11.1(화)~6(일) 교구청 내 안익사 일대  
11.16(수)~23(수) 4대리구청 강당  
문의: (010)3530-1217

#### 풍요로운 혼인생활을 위한 부부프로그램

394차 ME주말: 11.25(금)~27(일)  
장소: 한티피정의집 / 문의: 983-0521  
<http://dgme.or.kr> 접속 후 신청가능

#### 대구가톨릭남성합창단 단원 모집

한 마음으로 하느님을 찬양하실  
단원을 모집합니다.

연습: 매주 월 19:30, 계산문화관 5층  
문의: (010)3529-3898 / (010)3463-5191

#### 비대면 심리 독서 모임

심리적 자기이해·영적 성장을 위한 모임  
12월 매주(월) 9:00~12:00(일반신자)  
14:00~17:00(수도자)  
주최: 베네심리상담센터(개인상담가능)  
신청: 이데레사 수녀, (010)7241-2236

#### 바로로딸 11월 신앙아카데미

일자: 11.19(토) 15:00~16:30  
주제: 말씀으로 사는 위대한 성인들  
강사: 윤원진 요한마리아비안네 신부  
사전예약: (010)6681-5185 (무료)

#### 전인병원 건강보험검진

위·대장내시경 검사에서 결과까지  
당일 확인 가능합니다.  
문의: 670-5959

#### 천주성삼병원 보험공단검진

가족행복의 시작은 국가건강검진  
수성구 달구벌대로 3190(신매동)  
일반검진, 5대 암검진  
문의: 790-0660(8:30~17:30)

#### 대구파티마병원 기증제대혈은행

제대혈기증은 가장 효과적이고  
가치있는 사랑의 선택입니다.  
<http://cord.fatima.or.kr>  
문의: 959-8883 / 940-7126

## 월간 빛 정기구독

교구에서 발행하는 종합월간지 빛 정기구독을 통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만나보세요!

- ▶ 본당 구독 : 정가 1,500원, 1년 구독료 18,000원
- ▶ 우편 구독 : 정가 1,800원, 1년 구독료 21,600원 (우편료 300원 포함)
- ▶ 구독 문의 : 053)250-3158, 252-5392

### 이시아요양병원

대구시 동구 파계로6길 16(지묘동)  
(파군재 삼거리 좌회전 100m)  
**(053)983-7700**  
병원장 이동구 (마티아)



### 칠곡가톨릭병원 건강검진센터

복구 유일 폐암 검진 시행 기관

저선량 CT 장비 추가 도입 | 당일 촬영 가능

건강검진 예약 및 문의 ☎ 053) 320-2061



### 노인성 질환 전문요양 매일미사 봉헌, 영성치료



(재)대구구천주교유지재단  
**성요셉요양병원**

병원장 김명섭 (그레고리오) 신부  
TEL 053)615-4871

### 영원한 생명으로 찾아가는 길! 수성성당 연도실

기도와 실비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T. 010-3530-7700  
010-3817-0111  
양호진 요셉, 장호선 데보라

†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주재용(바로로) 신부  
1975년 11월 1일
- 박병원(필립보) 신부  
2002년 11월 3일

교구 | 대구구 알림

군위묘원 위령의 날 미사 안내

일시: 11.2(수) 11:00

(집전: 조환길 타대오 대구교)

장소: 군위묘원 내 성직자 묘지

준비물: 미사도구, 개인도사락, 보은용품

문의: 교구 관리과, 250-3003

군위묘원 위령성월 미사 안내

일시: 11.1(화)~10(목) 매일 11:00

장소: 묘원성당 미사

\* 미사 전후에 고해성사 있습니다.

예비신자 교리반 봉사자학교

일시: 11.16(수)~12.7(수) 14:00~16:30

(매주 수요일, 4주 과정)

장소: 교구 별관 대화합실/마감: 11.8(화)

대상: 예비신자 교리반 및 소공동체 봉사자

문의: 교구 사목국, 250-3056

세계 젊은이의 날 기념 찬양 축제

일시: 11.19(토) 17:00

장소: 예수성심시녀회 빠리니홀

신청: www.jesusclub.or.kr/dcy2030

문의: 교구 청년청소년국, 264-2030

교구 법원 공시

교구 법원이 이전하였음을 알립니다.

이전한 곳: 교구청 내 교육원 나동 2층

공시된 분은 연락바랍니다.

현근섭(마태오), 강준석(아브라함)

문의: 253-9550, (010)9382-9550

위령의 날 낙산묘원 미사

일시: 11.2(수), 11:00

문의: 비산성당, 564-1004

기관 | 시설 | 단체 알림

선목학원 초·중등학교 사무직원 채용

원서접수: 10.28(금)~11.4(금)

접수처: 학교법인 선목학원

법인사무국

홈페이지 참조 : www.dgsunmok.or.kr

원동수 신부의 Glass Fusing 展

일정: 11.1(화)~19(토)

장소: 대구가톨릭대학교 아마레 갤러리

주최: 대구가톨릭대학교 김종복미술관

주관: 대구가톨릭대학교 디자인대학

문의: 859-4000

마리아 사제운동 전국 대피정

일시: 11.19(토) 9:30~17:00

강사: 루카 페스카토리(세계대표신부)

미사: 조환길(타대오) 대구교 주례

장소: 주교좌 범어대성당

가톨릭신문 성지순례

11.29 베트남 5일 125만원

12.26 베트남 5일 125만원

1.21 설특선 이탈리아 9일 430만원

1.25 일본 나가사키 4일 125만원

문의: 428-5004 / www.cttour.org

2023년 대구주보 광고 신청 안내

- 사전서류접수: 10.31(월)~11.11(금)
- 제출방법: 문화홍보국(교육원 가동 3층으로 이전) 방문 또는 우편
- 주보광고접수: 11.24(목)
- 장소: 교구청 교육원 가동 3층 가정복음화국 회의실
- 제출서류: 교적증명서, 본당신부 추천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광고문안

※ 광고비 전액 계좌이체 (광고접수일부턴 익일까지)

광고 접수 시간 예고 | 광고접수 대기시간 단축을 위해 문화홍보국에서 사전에 진행한 순번추첨결과와 예상접수시간을 광고주들에게 미리 문자메시지로 알려드립니다.

문의: 교구 문화홍보국 (053)250-3048~9

**언어를 호성상회**  
(서문시장 내 주차빌딩 맞은편)  
김, 멸치, 산모용 미역, 안주, 반찬류  
배호성(렌리고), 박필교(율리안나)  
배대욱(임마누엘)  
☎ (053)255-9077  
010-9447-5193

**서만수 예쁜누네성형외과**  
Dr. SUN'S PRETTY EYE PLASTIC SURGERY CENTER  
999 서만수 (주) 대구 중구 중앙대로 366  
반월센트럴타워 8층  
눈성형 | 코성형  
필러, 보톡스  
진료문의: 216-7345

**비앤 비뇨의학과**  
24시간 요로결석  
비뇨과  
피부과  
내과  
대표원장 | 전문의 | 이윤형 (요셉)  
삼정브리타시 건너편 올리브영 3F  
Tel. 053 552 2525

**건강검진 전인병원**  
대구가톨릭대학병원 입구 1688-7667

예전처럼 언제나,  
지금 나에게 스며드는 공간  
**젬마앤티크**  
Instagram gemma\_antique  
방문 예약 및 문의  
김진희 젬마 010-5785-8952  
(유립 출장이 있을 수 있으니 방문 전 연락주세요!)  
경북 칠곡군 왜관읍 2산단입지2길 167

**대한요양병원**  
재활전문/암/노인성질환/투석요양  
대구시 중구 중앙대로 297(남산동)  
(경북여고 건너) Tel. 053.218.8800  
병원장 김봉일(파우스티노)

**범어캠퍼스**  
EIE 고려대학교  
영어교육 프로그램  
표현중심영어 | 필리핀영어캠프  
박지영 베로니카 053)745-3400

**대구연세안과**  
백내장/노안/라식/녹내장/망막질환  
대표원장 박중원(소시모)  
(현 연세대 외래교수)  
안과전문 의 서재신(베드로)·장주현(비버안나)  
수성구보건소 맞은편 대동M타워 4~6층  
☎ 053) 626-8881~5